#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 www.sturightnow.net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신 : 각계 대표

제목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호소 기자회견 참여 요청서

날짜 : 2011년 4월 7(목)

문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배경내(017-214-3550)

---

1. 귀하(귀 단체)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입니다. 저희는 '학생인권, 행복교육의 시작', '학교에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힐 수 있어야 한다'라는 믿음 아래,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주민발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조례제정청구인 대표 홍세화). 2011년 4월 26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81,885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되게 됩니다.

3. 그러나 조례제정 서명 마감일을 20여 일 남겨둔 상태에서 서명 숫자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주민발의운동을 기어이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로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계 대표님들이 참여하셔서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4. 참여하시는 각계 대표님들은 **A4 반쪽 분량(원고지 4-5매)으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와 각계 내부를 향한 호소, 대시민 호소를 담은 발언문을 보내주십시오**. 기자회견문에 첨부하고,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문은 4월 9일(토) 저녁 6시까지, hrs3388@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발언문을 바탕으로 2분 이내의 발언을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기자회견 기획안

#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 “학생인권, 모든 이의 인권과 민주사회를 여는 첫걸음”

**-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각계 대표 기자회견**

□ 때: 2011년 4월 11일(월) 오전 11시
□ 곳: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 경과보고

2. 각계 대표 결의와 호소 발표
 - 교육주체 : 교사 대표/ 예비교사/ 장애학생 부모 대표/ 청소년
 - 노동조합 대표
 - 종교계 (가톨릭/ 불교/ 기독교/ 원불교/ 성공회)
 - 시민사회단체 대표
 - 정당 대표

3. 공동 결의문 낭독